

보도 일시	2022. 9. 5.(월) 09:00	배포 일시	2022. 9. 5.(월) 09:00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현 (044-203-2811)
		담당자	사무관 김명혜 (044-203-2809)

밤에도 관광의 빛 밝힌다

- ‘야간관광 특화도시’ 국제명소형에 인천광역시, 성장지원형에 통영시 선정, 지자체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내년 정부 예산안 2배 이상 증액 -

한국에서도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Symphony of Light, 라이트 쇼)와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세계 최대 빛 축제)와 같은 야간관광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신상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첫 번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국제명소형’에 인천광역시, ‘성장지원형’에 경남 통영시를 선정했다. 올해 각각 국비 7억 원과 3억 원(동일 규모 이상 지방비 별도)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서 최대 4년간 ‘밤이 더욱 매력적인’ 우리나라 대표 야간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관광객이 지역에 하루 더 머무르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새 정부 국정과제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세계적 수준의 야간관광 매력도시로 성장할 ‘국제명소형’과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성장지원형’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 인천’, 오방색으로 물든 ‘밤 아홉 시, 통영 오광’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100년 전 개항도시 ‘월미관광특구(월미도·개항장)’와 미래도시 ‘송도’를 연결해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꿈꾼다. 송도센트럴파크와 월미도, 개항장·자유시장을 핵심 권역으로 정서진, 수봉공원, 청라호수공원 등까지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인천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 관광객 110만 명 유치, 소비지출액 770억 원 유발과 일자리 3,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성장지원형’에 선정된 경남 통영시는 ‘밤 아홉 시, 통영 오광(五光)’을 주제로 과거 삼도수군통제영의 밤 문화(12공방)와 전통문화예술자원(통영 오광대, 옷칠 등)을 바탕으로 통영만의 야간관광을 계획했다.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디피랑*’의 성공을 주도한 통영시는 ‘디피랑’을 중심으로 동피랑, 강구안, 통제영, 서피랑까지 오방색으로 물들인 야간관광 르네상스를 통해 2027년 맞이할 남부내륙철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 디피랑: 벽화들이 살아 움직이는 빛의 정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앞으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특화된 홍보마케팅은 물론 야간관광 콘텐츠와 경관 명소, 관광 여건 등 국내외 분야별 자문위원단을 통해 사업 단계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두 도시가 야간관광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공모사업에 28개 지자체가 지원해 경쟁이 뜨거웠던 만큼 내년에는 정부안에서 예산이 증액(14억 원→34억 원, 20억 원 증) 되어 인천광역시와 통영시 외에도 좀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밤에는 불거리가 부족했던 도시가 야간관광으로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와 관광 분야 신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현 (044-203-2811)
		담당자	사무관	김명혜 (044-203-2809)
<협조>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책임자	팀장	정용문 (033-738-3431)
		담당자	차장	김일중 (033-738-3432)



□ 야간관광 특화도시 개요

- (정의) 야간시간(6 to 6)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콘텐츠로 관광소비를 창출하고 식음·숙박·교통·안내·쇼핑·정책 등 야간 관광여건이 갖춰져 있는 도시
- (구성요소) ① 야간 콘텐츠, ② 야간 경관명소, ③ 야간 관광여건

구분	정의	추진내용
① 야간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 관광객이 스스로 활동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는 콘텐츠 * 야시장, 공연, 액티비티, 도보해설, 시티투어, 야간개장 등 ▪ (비상설) 특정 기간 평균 방문객 수 이상의 관광객을 야간에 집객하게 만드는 축제/이벤트/행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기존 보유 콘텐츠간 연계 및 시공간적 확장(이벤트성→상설화, 범위 확대) ▪ 지역고유 스토리텔링 통한 차별화 및 브랜드화
② 야간 경관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을 관람 및 조망할 수 있는 시설물을 조성하여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명소 * 야간조명, 미디어파사드, 전망타워, 포토스팟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신규 시설조성 및 개선사업은 지자체 매칭 예산으로 추진
③ 야간 관광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콘텐츠 및 경관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식음/숙박/교통/안내/안전/쇼핑/정책 등의 관광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이동수단 지원 ▪ 식음(야시장, 심야식당), 숙박(레이트체크 아웃), 치안, 쇼핑 등 개선 ▪ 야간 프로그램 운영 및 해설안내 인력운영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야간관광 특화도시 구상도(안)

